

#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에 대한 조사 연구

- 간행연대 고증과 內醫院刻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白裕相<sup>1\*</sup>

## A Study on Eulhaeja(乙亥字)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 Focused on Investigation of Publish era and Comparision with Other Korea-published 『Huangjenaegyong(黃帝內經)』

Baik You-sang<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e purpose of the study on Eulhae metal type(乙亥字)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is to ascertain the era of that publication according to recent investigation and find the properties of that book through comparision with other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published in ancient Korea, Choseon Dynasty. Because we are not yet secure more various Eulhae metal type(乙亥字) books and collaterally printed books, and there would be more unknown Eulhae metal type(乙亥字)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in Korea or abroad, so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on of publish are only based on the record in that book, and comparision with the context of other Korea-published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As a result Eulhae metal type(乙亥字)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was published in Myeongjong era about 1554-1557, was the very original book of exiting Naeuwon(內醫院) type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This Publication of this book published with Eulhae metal type(乙亥字) 『Huangjenaegyongchu(黃帝內經靈樞)』 at the same period explains that at that time Choseon Dynasty lay emphasis on promoting Medicine and teach 『Huangjenaegyong(黃帝內經)』.

**Key words :** Huangjenaegyongsomun(黃帝內經素問), bibliography, Eulhae metal type(乙亥字)

## I. 序論

『黃帝內經』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위로는 秦漢 이전부터 내려오던 중국 의학의 성과가 그 속에 체계적

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로는 주로 진한 무렵에 집대성되면서 당시 통일국가의 철학 속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陰陽五行論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리 잡은 당시 의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馬王堆帛書』 및 「창공열전」, 「漢墓竹簡」 등 당시를 진후하여 산재되어 있는 여러 의학 진적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당시 의학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진적이다.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02) 961-0326, baikys@khu.ac.kr  
접수일(2011년 5월11일), 수정일(2011년 5월25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20일)

고대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의가들이 『內經』을 언급하고, 『內經』의 이론과 생리, 병리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학사상을 표현하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黃帝內經』은 시대 고금을 막론하고 각 시대 별 또는 의가별 의학사상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서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의 경우도 각 항목마다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內經』의 條文을 인용하여 이론적 설명을 한 후에 각론과 임상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에서는 金元四大家 뿐만 아니라 청대의 여러 溫病學者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다.

『黃帝內經』은 또한 의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서 의료인 양성뿐만 아니라 의관을 뽑는 과거 시험에서도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sup>1)</sup>. 그러므로 시대별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 분석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문화사적으로도 의학을 담당하였던 당시 의료인의 세계관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형성하고 의료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서적이다.

한국한의학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의학 발전 이외에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어 온 새로운 의학지식을 어떻게 소화하여 적용해나가는가가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黃帝內經』의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미 오래 전부터 학습되어 왔으나 각 시대별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의학이 유입될 때, 그것을 정리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黃帝內經』의 연구로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근간을 다시 세우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래 의학의 소화하는 과정에서 의학의 원리로 환원하여 새로운 의학을 정립하는 데에 『黃帝內經』이 항상 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한의학의 전통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에 한국의 『黃帝內經』 관련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확인된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에 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하여 간행 연대를 밝히고 기타 조선판본과 비교하여 간략한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직 乙亥字本과 傍系乙亥字本의 다양한 활자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판본학적으로 세밀한 고증을 하기에는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조선판본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乙亥字本의 교감자에 대한 標識를 근거로 연대를 고증하며 내의원본 『黃帝內經素問』과의 내용 비교에 범위를 국한하였다.

## II. 本論

### 1. 『黃帝內經』 판본의 계통

『黃帝內經』에 대한 서지학적 초기 연구는 龍伯堅의 『黃帝內經概論』<sup>2)</sup>을 들 수 있다. 그는 저서에서 『黃帝內經』의 저작자, 서명 유래, 저작 시기, 전래 과정, 판본 등에 대하여 폭넓게 연구하였으며, 『黃帝內經』 각 편의 의학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헌학적 결론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후 중국의 馬繼興은 『中醫文獻學』<sup>3)</sup>을 저술하여 중국전통의학의 주요 의서의 판본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의서의 판본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계통도를 완성하였고 이는 이후 의학 문헌학자들에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내의 의서 판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黃帝內經』 판본에 대한 소장 현황도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선각본 『黃帝內經』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각 판본의 대조 작업을 통하여 계통을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 1) 『黃帝內經素問』의 판본 계통

원서는 9권 81편 분량인데 魏晉 이후로는 8권만 전해 오고 있다. 唐代的 王冰은 전해오던 『全元起本』에 주석을 보완하여 24권으로 개편하였고 7편의 「大論」을

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3. p.30, 66, 134, 177, pp.419-422

2) 용백건. 황제내경개론. 서울. 논장. 1988. p.1-216.

3) 마계홍. 중의문헌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p.68-85.

보충하였는데, 이때에도 「刺法論」과 「本病論」 2편은 빠져 있었다. 王冰本을 北宋의 林億 등이 校注한 新校正을 거쳐 현재 전래되는 소문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후 24권본은 명대의 顧從德本으로 이어져 내려와 이후 다른 판본들의 저본이 되었으며, 元代 胡氏古林書堂刊本에서 12卷本の 형식으로 바뀐 것은 趙府居敬堂刊本 등으로 전해내려 왔다. 朝鮮本 『素問』은 주로 12卷本の 형식을 가지고 있다.

## 2) 『黃帝內經靈樞』의 판본 계통

전 9권에 모두 81편인데 鍼經, 九卷이라고도 한다. 隋唐代에 九靈, 九墟, 靈樞 등 여러 傳本이 있었으나 宋代까지 대부분이 산실되었고, 현존하는 『靈樞』의 傳本은 高麗가 宋에 넘겨주었던 것을 南宋의 史崧이 다시 편집, 교정하여 24권으로 만든 것이다. 『素問』과 마찬가지로 胡氏古林書堂刊本에서 12卷本으로 형식이 바뀐 것이 내려온다. 朝鮮本 『靈樞』는 주로 12卷本の 형식을 가지고 있다.

## 2. 朝鮮本 『黃帝內經』의 개요

### 1) 학계에 보고된 판본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황제내경 朝鮮本을 살펴 보면 馬繼興의 『中醫文獻學』에서 朝鮮本の 『黃帝內經』이 소개되고 있다.

『素問』의 王冰注本 중에서 24卷本の 朝鮮刊本으로서 연대미상의 1종의 간본이 遼寧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sup>4)</sup> 또한 12卷本 중에서는 2종류가 있는데 萬曆 43년 1615년에 內醫院에서 간행한 活字本 1종과, 그 重刊本 1권이 있다고 하였다.<sup>5)</sup>(후자는 杏雨書屋 書目에 보인다고 되어 있음) 『素問』에 비하여 『九卷(鍼經)』의 朝鮮本으로는 24卷本, 12卷本 모두 2종의 문헌학 『中醫文獻學』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 보고로는 손보기의 『금속활자와 인쇄술』<sup>6)</sup>에서 다음의 3종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甲寅字本

(고려대학교 화산문고)<sup>7)</sup>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姜希顔字-乙亥字

(국립도서관)<sup>8)</sup>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甲辰字(일본 다케다문고)<sup>9)</sup>

이상 3종의 활자본 『黃帝內經素問』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현재 국립도서관에는 을해자본 『黃帝內經素問』이 없으며 기타 판본도 아직 확인 불명의 상태이다.

이상의 학계에 보고된 판본 중에서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黃帝內經素問』 內醫院字 木活字本과 그것의 翻刻本이다. 馬繼興이 『中醫文獻學』에서 萬曆43년 1615년에 內醫院에서 간행한 活字本 1종과, 그 重刊本 1권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판본들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萬曆43년 內醫院本의 1종의 木活字本(內醫院字)과 1종의 木版本이 소장되어 있는데 판본을 살펴보면 목판본이 목활자본의 翻刻本임을 알 수 있다. 翻刻本은 활자본을 뒤집어 붙이고 그대로 세긴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와 字列, 모양 등은 동일하나 각수의 숨씨에 따라 획이 일정하지 않으며 갈자국 등이 나타난다.<sup>10)</sup> 이 內醫院本들은 通訓大夫<sup>11)</sup> 內醫院 直長<sup>12)</sup>인 李希憲<sup>13)</sup>과 尹知微가 교감한 것이다.

7)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284

8)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291

9)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300

10)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서울. 범우사. 1993. p.173.

11) 通訓大夫: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문관 정3품의 하(下)계이며,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당하관(堂下官)이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계궁(階窮)이라고 하였다. 기술관이나 서얼 출신의 관리는 이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12) 直長: 조선시대 각 관아에 두었던 종7품 관직. 각 관아에 두었던 종7품 관직으로, 주로 궁궐 내의 제정, 물품담당야문에 배치되어 전곡, 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1393년(태조 2) 7월 관제 제정 때 고려의 제도에 따라 사용원, 내의원, 상서원 등 많은 부서에 1~3명씩 설치하였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13) 참고문헌 전자매체 2.의 초록보기: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한의사였던 이희헌(李希憲, 1569-1651)이 교감(校監)하여 간행한 의학서로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4) 마계홍. 중의문헌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p.76.

5) 마계홍. 중의문헌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p.76.

6)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卷末에 官銜과 姓名이 표기되어 있다.

1종의 목활자본의 서지학정보는 다음과 같다.<sup>14)</sup>

표제: 黃帝內經素問 1-9 / 李希憲 監校  
판사항: 木活字本(內醫院字)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內醫院, 光海君 7(1615)  
형태사항: 12卷9冊: 四周雙邊 半郭 22.0 x 16.1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0.0 x 20.5 cm

현재 『黃帝內經素問』內醫院字本の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도 동국대, 연세대, 계명대, 인수문고, 상암문고, 산기문고, 성암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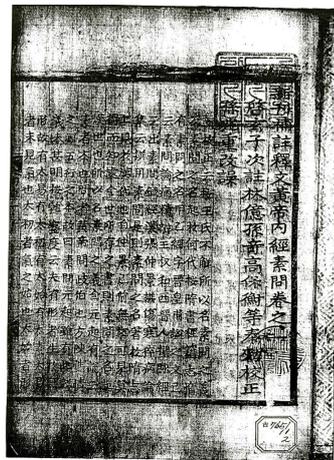


그림 1. 황제내경소문 내의원목활자본 (1615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표적인 의서 『황제내경(皇帝內經)』에 대한 주석서(註釋書)이다. 본서를 교감한 이희헌은 본관이 우계(羽溪)이며 자는 가정(可正)이다. 아버지는 대사헌(大司憲)을 지냈던 이감(李戡)이고 어머니는 윤연수(尹延壽)의 딸이다. 정헌대부(正憲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천현령(陽川縣令), 내의원직장(內醫院直長) 등을 역임하였다. 본서는 그가 내의원직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광해군(光海君) 7년(1615) 교감하여 간행한 것이다.

14)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7662215&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53&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7662215&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53&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

15) 참고문헌 전자매체 1.의 조록보기: 국립중앙도서관본은 12권 9책으로 첫 페이지 고보형, 임억 등이 쓴 서문 첫줄 하단의 다섯 글자(之先務, 求民)가 식별이 어려운 두 종의 장서인(藏書印)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 권말에는 “萬曆四十三年 二月 日內醫院奉教刊行”이라는 간기와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 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 臣尹知微”라는 감교관의 관함(官銜)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목록인 1권 1책으로 사주쌍변(23.0 x 17.5 cm), 유계, 반엽 10행 18자이고 주쌍행이며, 판심은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다. 표제는 『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總目』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서인(藏書印)으로는 “海圓樓珍藏”이라 날인되어 있다. 인수문고(仁壽文庫) 소장본은 12권 12책으로 사주단변(22.0 x 16.0cm), 유계, 반엽 10행18字, 주쌍행이며, 판심은 내향2엽화문어미이다. 표제는 『黃帝素問』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심체(版心題)는 『내경(內經)』으로 되어 있다. 권말에는 “萬曆四十三年 二月 日內醫院奉教刊行”이라는 간기가 있으며,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 臣李希憲 /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 臣尹知微”라는 감교관의 관함(官銜)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성암문고(誠庵文庫) 소장본은 권5와 권10이 있고, 연세대와 상암문고(尙熊文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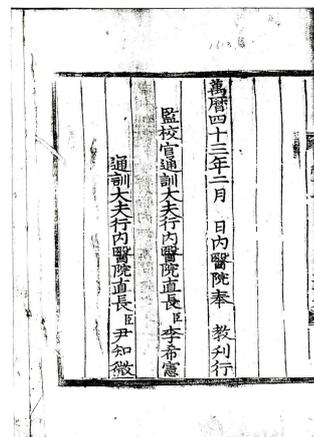


그림 2. 내의원목활자본 간행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종의 목판본의 서지학정보는 다음과 같다.<sup>16)</sup>

표제: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卷1-12, 運氣論奧 / 李希憲 監校

소장본은 12권 10책이며, 계명대 소장본은 12권 13책, 산기(山氣)문고 소장본은 1책만 있다.

16)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48585216&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72&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48585216&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72&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

판사항: 木板本

발행사항: 漢陽[서울] : 內醫院, 光海君 7(1615)

형태사항: 12卷14冊, 運氣論奧1冊, 共15冊 : 插圖多數,  
四周單邊 半郭 20.8 x 16.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0.5 x 19.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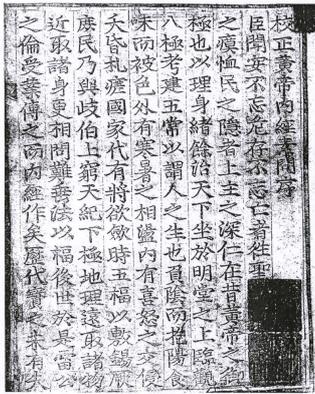


그림 3. 황제내경소문 내의원번각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木活字本을 간행한 이후 다시 木板本으로 翻刻한 것으로 보이며 이 木板本의 연대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 되지 않았다. 단, 일본 동경대학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木板本에 대한 일본 문헌학자들의 해설에서 영조, 정조 때 복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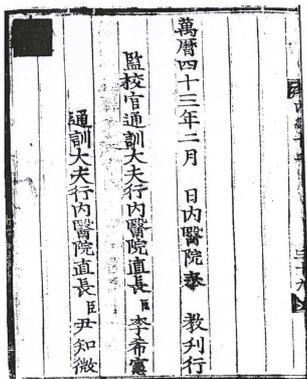


그림 4. 내의원번각본의 간행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2) 학계에 미보고된 판본

손보기의 『금속활자와 인쇄술』에서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이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는 목록에 없다. 그러나 日本宮內廳書陵部에서 소장하고 있는 乙亥字本『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를 2004년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소장하고 있다. 乙亥字本『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sup>17)</sup>

표제: 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 / 田經(宋) 校正

판사항: 金屬活字本(乙亥字)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明宗年刊 (1545-1567)]

형태사항: 12卷3冊 10行18字

乙亥字本『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는 정확한 간행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乙亥字의 형태와 책의 상태를 파악하여 明宗 연간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을해자활자본과 을해자목 활자본이 함께 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sup>18)</sup>.

乙亥字本『黃帝內經靈樞』는 歷城縣 儒學教諭 田經이 校正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歷城縣은 현재 中國 山東省에 있다. 이는 馬繼興의 『中醫文獻學』에 나오는 明刊本『靈樞』의 하나인 田經校正本이다<sup>19)</sup>. 田經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저자가 山東圖書館에서 地方志를 확인하였으나 田經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乙亥字本『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는 중국의 『靈樞』 田經校正本을 다시 乙亥字로 간행한 것이다. 당시 중국서적을 그대로 간행하면서 校正者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은 내용에 대한 校正을 실제 시행하고 그에 대한 監交者를 표기하였으나 乙亥字本『黃帝內

17)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etc&service=KORCIS&vdkvgwkey=139813918&colltype=dan-old&place\\_code\\_info=&place\\_name\\_info=&manage\\_code=AJPN22&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totalList&srchFlag=Y#dummy](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etc&service=KORCIS&vdkvgwkey=139813918&colltype=dan-old&place_code_info=&place_name_info=&manage_code=AJPN22&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totalList&srchFlag=Y#dummy)

18) 김치우. 을해자본과 방계자본고. 도서관학논집 27. 2008. pp.49-50.

19) 마계홍. 중의문헌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p.83.

經靈樞』는 校正을 하지 않고 중국판본을 그대로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黃帝內經靈樞』 田經校正本은 현재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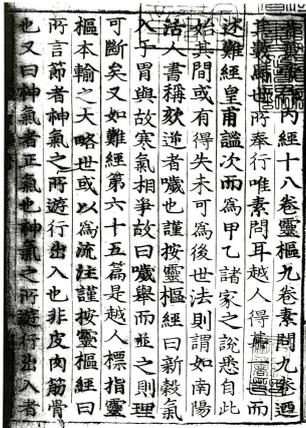


그림 5. 조선 황제내경영추 을해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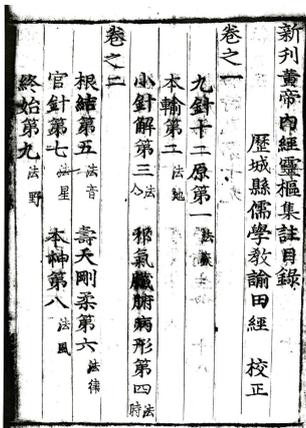


그림 6. 역성현 전경 교감 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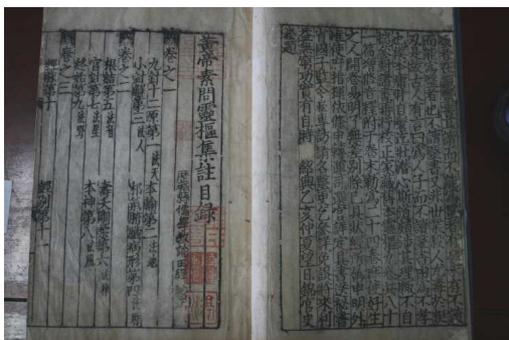


그림 7. 영추 전경교감본(1525년 상해도서관 소장)

### 3.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에 대한 조사 내용

#### 1) 乙亥字本の 개요

乙亥字라고 하는 것은 세조 원년(1455, 乙亥年)에 姜希顔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만든 동활자이며, 乙亥年에 만들었기 때문에 乙亥字라 한다. 금속활자의 경우 한번 주조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그 활자가 마멸될 때까지 오랜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乙亥字의 경우 1455년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宣祖 전기까지 사용되었다.<sup>20)</sup>

특히 明宗, 宣祖 초기에 이르러서는 활자가 마멸되어 補字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활자의 상태와 그 책의 상태, 紙質, 책 판심에 있는 어미의 모양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책의 시기를 추정하게 된다. 宣祖 초기에는 대량의 乙亥字 補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21)</sup>.

#### 2)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의 刊行 시기에 대한 고증

현재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은 일본 히로시마현의 미하라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宮內廳書陵部에도 같은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미하라시(三原市)<sup>22)</sup>는 전국시대 고바야카와타 카카게(小早川隆景)<sup>23)</sup>의 서령지였는데 여기에 거주하던 미즈노쇼우린켄(水野松林軒)<sup>24)</sup>이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가 파견한 의사 마나세도우산(曲直瀬道三)으로부터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과 『啓迪集』을 입수하여 소장하여 오다가 이후 하라시(原氏) 및 사토 무라시(里村氏) 등의 가문을 거쳐 사토무라망조우(里村萬造)라는 사람이 쇼우와(昭和) 5년(1930년)에 고서 50여 책과 함께 미하라 시립도서관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의 刊行 시기에 대한 고증은 자형과 판본 형식을 통한 비교 자료가 매우

20)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1. p.64  
21) 김치우. 을해자본과 방계자본고. 도서관학논집 27. 2008. pp.38-42.  
22)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소재  
23) 전국시대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의 대명大名으로. 모우리모토나리의 셋째 아들임.  
24) 고바야카와타카카게의 侍醫임.

부족하므로 卷末에 기록되어 있는 交正者와 監校者의 官銜과 姓名에 따라 고증하였다.



그림 8. 을해자본 황제내경소문 (일본 히로시마현 삼원시립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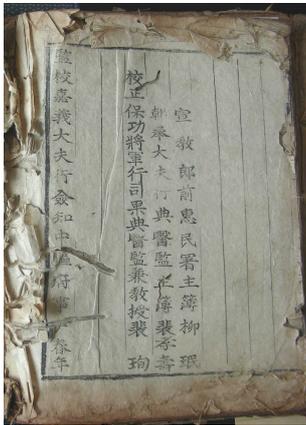


그림 9. 을해자본 소문 권말 표기 (일본 히로시마현 삼원시립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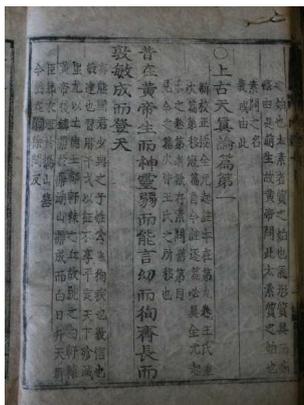


그림 10. 을해자본 소문 상고천진본 (일본 히로시마현 삼원시립도서관 소장)

宣敎郎<sup>25)</sup>前惠民署<sup>26)</sup>主簿<sup>27)</sup> 柳珉  
 朝奉大夫<sup>28)</sup>行典醫監<sup>29)</sup>主簿 裴孝壽  
 校正 保功將軍<sup>30)</sup>行司果<sup>31)</sup>典醫監兼敎授<sup>32)</sup> 裴珣

- 25) 宣敎郎 : 조선시대 동반관계(東班官階)의 하나. 동반은 문관에게 수여한 관계로서, 이는 무관에게 수여하는 무산계와 함께 관계의 근간을 이루었다. 선교당은 종6품 상(上)의 관계이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26) 惠民署 : 조선시대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아본 관청. 1466년(세조 12년)에 세워졌다. 조선 태조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하였고 이후 혜민국(惠民局)이라 불렀다. 1466년(세조 12) 혜민서로 바꾸었다가, 1882년(고종 19) 폐지하였다. 관원은 타관이 겸임하는 제조(提調) 1명, 주부(主簿), 의학교수,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 각 1명과 참봉 4명이 있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27) 主簿 : 조선시대의 관직. 종친부(宗親府), 돈령부(敦寧府), 한성부(漢城府),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사옹원(司饔院),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사섬시(司贍寺), 군사감(軍資監), 장악원(掌樂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역원(司譯院), 선공감(繕工監), 풍저장(豊儲倉), 광흥창(廣興倉), 사도시(司寺), 사제감(司宰監), 제용감(濟用監), 평시서(平市署), 사문서(司讞署), 전생서(典牲署), 내자시(內資寺), 예빈시(禮賓寺),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양현고(養賢庫), 혜민서(惠民署), 전옥서(典獄署) 및 무관관서의 훈련원에 두었던 종육품관이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28) 朝奉大夫 : 조선시대의 관계(官階). 『경국대전(經國大典)』(1485) 당시에는 종4품 하(下)의 동반(東班:文官)의 관계였으나,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의 광성대부(光成大夫)도 이 이름으로 고쳤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29) 典醫監 : 조선 개국년인 1392년 설치된 의료행정과 의료교육을 관장하던 관청. 중부 견평방(堅平坊:견지동)에 설치되어 왕실 및 조관들의 진료,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 약재의 종식(種植), 의학취재(醫學取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정3품), 감(監:종3품), 소감(少監:종4품), 승(丞:종5품), 겸승(兼丞:종5품), 주부(主簿:종6품), 겸주부(兼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 박사(宗8품) 각 2명, 검약(檢藥:정9품) 4명, 조교(助教:종9품) 2명을 두었다. 1603년(선조 36) 중기(腫氣) 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치중청(治腫廳)을 병합하여 말기까지 존속하였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내의원(內醫院)에 통합되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0) 保功將軍 : 조선시대 무산계(武散階)의 관계명. 무산계 종3품 하계(下階)의 관계명이다.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 종3품의 상계는 보의장군(保義將軍),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제정되었다. 《경국대전》에 보의장군은 건공장군(建功將軍)으로 보공장군은 보공장군으로 기록되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1) 司果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6품 군직(軍職). 정원 21명으로서, 부사직(副司職)의 다음 벼슬이다. 원록체야직(元祿遞兒職)으로,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을 후대하고, 대기문관(待機文官)에게 봉록만을 급여하기 위

監校 嘉義大夫<sup>33)</sup>行僉中樞府事<sup>34)</sup> 尹春年

우선 당시 惠民署 主簿였던 柳珉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보면 朝鮮王朝實錄 宣祖 13년(1580년)과 32년(1599년)에 두 차례 보인다.

宣祖 13년 庚辰(1580년) 12월 6일(辛丑)에 醫官 柳珉의 과실에 대하여 詔獄推考를 청하는 조문이 기록되어 있으며,<sup>35)</sup> 宣祖 32년 己亥(1599년) 7월 24일(辛未)에는 醫官 梁禮壽, 柳珉에게 熟馬 1필을 사급하라는 기록이 있다.<sup>36)</sup>

하여 임명하는 직무 없는 관직이다. 현직에 있지 않은 문무관(文武官), 음관(蔭官) 중에서 임명하였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2) 兼教授 : 조선(朝鮮) 때, 호조(戶曹), 형조(刑曹), 도화서 등(等)에 딸리어, 산술, 법률(法律), 그림에 관(關)한 학술(學術)을 가르치던 벼슬. 조선 시대에, 문관들이 겸임하여 실용 기술을 가르치던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호조, 형조, 관상감, 사역원, 해운서 따위에 두었다. 본디 기술직이었으나 역관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문관들로 일부 겸직시켰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3) 嘉義大夫 : 조선시대 문관 중2품 상(上)의 관계명. 조선 초부터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으나, 1522년(중종 17) 명(明)나라 세종이 즉위하면서 '가정'을 연호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가의로 고쳤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은 돈령부, 의금부, 경연, 춘추관, 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우윤, 사헌부의 대사헌, 8도 관찰사 등이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4) 僉中樞府事 : 조선 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임. 중추부(中樞府) 참고. 아인을 접대할 때 관찰사, 절도사는 북쪽, 당상관인 우후, 수령은 서쪽 앞줄에 모두 교외에 앉는다. 당상관인 아인은(참지중추부사이상) 서쪽 뒷 줄 승상에 앉는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5) ○ 辛丑/司諫院啓: “前牧使黃廷彧或緘答之際, 援引政院, 不顧事體, 苟且圖免, 請推考. 政院實不知廷或疾病之輕重, 而承下問之後, 泛然以實病入啓, 顯有營救之狀. 請色承旨遞差, 同參承旨推考. 司藝沈忠謙, 都事李淮壽, 部將趙彥忠, 直長鄭士樞, 當上體未寧, 上下遑遑之時, 公然嫁娶, 有同平時, 請罷職. 軍資主簿李脩愚劣, 請罷. 忠清水使李崐悖妄, 請罷. 內醫柳珉當初聖候未寧之夜, 入直藥房, 醉酒不省, 請詔獄推考.” 答曰: “沈等事, 柳珉, 李修事如啓. 李崐可遞, 黃廷或事, 予偶問也. 政院因予問而回啓也. 豈有營救之理乎? 今但論廷或實病與否而已. 不允.” 後允之.(참고문헌 전자매체 5.조선왕조실록)
- 36) 備忘記曰: 中殿遂安留駐時, 終始扈衛領中樞府事崔興源熟馬一匹; 假摠管李齊閔, 扈衛大將郭嶸・【壬辰爲全羅防禦使, 賊犯全州, 錦山等處, 嶸望風奔潰, 其懦怯無方略如此.】曹大坤, 【壬辰, 倭賊陷釜山, 東萊, 分道長驅, 一軍由熊川, 直抵金海府, 大肆屠掠. 大坤時爲右兵使, 懼怯退縮, 終不能禦. 右道列邑之連陷, 無非大坤之罪也.】分兵

기타 문집 중에는 韓致齋의 『海東釋史』<sup>37)</sup>에서 중국에서 온 사신 許國이 醫官인 柳珉에게 지어준 詩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직책이 典醫監 僉正<sup>38)</sup>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9)</sup> 許國은 明의 주재후인 隆慶 원년 6월에 卽位詔를 반포하기 위하여 조선에 파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마침 明宗이 서거하고 宣祖가 즉위하게 된다. 이때가 隆慶 원년 1567년이다. 許國은 조선의 지인들에게 시문을 주어 교류를 하였는데 그 기록 중 그를 수행하던 醫官 柳珉에게 준 시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柳珉은 정식수행원은 아니고 임시로 수행원의 행렬에 참여한 자였다.<sup>40)</sup> 主簿가 종6품이고 僉正이 종4품이므로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은 적어도 중국 사신이 왔던 1567년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尹斗壽(1533~1601)의 시문집인 『梧陰遺稿』<sup>41)</sup>에

曹堂上李輅, 司饗院提調文城君健, 引儀朴應賓, 宣傳官鳳林都正彥瑄等五, 承傳色內官鄭漢瑣·金仁俊, 各加一資; 內乘朴東彥, 分戶曹佐郎姜紘, 部將李成憲, 司饗院奉事權慶男, 守門將朴士嚴等三, 竝陞職; 醫官楊禮壽·柳珉, 內官方俊豪·張鶴年·金璽信·金璘·宋彥連·金胤申·金大器, 各熟馬一匹; 內官金起文·金禮禎·羅忠男·朴承宗, 各兒馬一匹賜給.”(참고문헌 전자매체 5.조선왕조실록)

- 37) 海東釋史 : 조선(朝鮮) 영(英)·정조(正祖) 때의 학자(學者) 한치운(韓致齋)이 영조 때에 엮은 역사책(歷史冊). 우리나라의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역사책에서 단군에서 고려 시대까지의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을 뽑아서 엮었다. 71권.(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8) 僉正: 조선시대 정3품 당하야문(堂下衙門) 중 시(寺), 원(院), 감(監) 등의 이름이 붙은 관아에 속한 종4품직. 돈령부(敦寧府), 사옹원(司饗院), 내자시(內資寺), 내성시(內廳寺), 사도시(司寺), 사성시(司膳寺), 군사감(軍資監), 계용감(濟用監), 사제감(司宰監), 봉상시(奉常寺), 내의원(內醫院), 예빈원(禮賓院), 장악원(掌樂院), 전의원(典醫院), 사역원(司譯院), 훈련원,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등에 속해 있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39) 죽계(竹溪) 유 의관(柳醫官)에게 주다 본서에 이르기를, “의관 유민(柳珉)은 유학(儒學)을 공부하다가 이루지 못하여 의술을 배웠다. 전의감 첨정(典醫監僉正)으로서 원점사를 따라왔는데, 호가 죽계이다.” 하였다. [許國] / 朝從竹溪遊 / 暮從竹溪宿 / 洗藥臨清溪 / 懸壺傍深竹 / 海國近仙鄉 / 海客多禁方 / 蓬萊覓奇草 / 逆旅訪長桑(참고문헌 전자매체 6.한국고전종합DB)
- 40) 최소자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동아시아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서울. 서해문집. 2005. p.95.
- 41) 梧陰遺稿 :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시문집. 고헌자본, 3권 3책. 규장각도서. 1635년(인조 13) 아들 방(防)이 편집, 간행. 권두에 장유(張維), 김상헌(金尙憲)의 서문이 있다. 시, 서(序), 발(跋), 상량문

宣祖 29년 丙申(1596년)에 三靑洞에서 柳珉 등 3인과 동갑계를 결성하고 지은 시가 기록되어 있다.<sup>42)</sup> 시의 내용에서 당시 尹斗壽가 64세라고 하였고 지인들이 동갑이라 하였으므로 柳珉도 역시 1533년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表孝壽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고증하지 못하였으며, 表珣은 明宗 4년(1549) 己酉 式年試 進士 2등 1위로 급제한 襄任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李荇<sup>43)</sup>의 『容齋集』<sup>44)</sup>의 行狀에 表珣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sup>45)</sup> 모두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襄任은 周世鵬의 『武陵雜稿』<sup>46)</sup>에 기록이 남아 있다.<sup>47)</sup>

(上標文, 묘갈명(墓碣銘), 서(書), 잡설(雜說),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말에는 윤방의 발문이 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42) 丙申暮春上巳。與峒隱李宜仲古玉鄺君敬，醫士柳珉修。同甲楔會于三靑洞。有感而作。說到悲歡白盡頭/ 人間六十四春秋/ 曾經寶馬馳香陌/ 更向新亭嘆楚囚/ 草草杯盤爲此會/ 惻惻言語不能休/ 誰誇少長咸來集/ 同甲惟看點酒籌(참고문헌 전자매체 6.한국고전종합DB)

43) 조선시대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容齋).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趙光祖) 일파가 거세되자 부제학(副提學)이 되고, 대제학공조참관이 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라 대제학을 겸하였다. 1529년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찬진(撰進)하였으며, 그 이듬해 좌의정(左議政)이 되었으나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논박하다가 함종(咸從)으로 귀양가 그 곳에서 병사하였다... 그는 시문에 모두 재능이 있고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그의 시는 당시 박은(朴潤)과 경향을 같이 하면서도 침잠(沈潛)하고 담아(澹雅)한 맛이 있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오언고시(五言古詩)에 특장이 있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44) <http://blog.naver.com/munjunggong?Redirect=Log&logNo=120106406248>

45) 行狀：有儒生表珣。步遇於景福宮碑隅。隱軀而窺之。公以袂拭淚。兩目皆赤。生怪之甚。行見有人當刑。始知公乃泣辜也。聞者曰。公之是心。卽天地好生之心。世之不知公者。雖罔曰不愛物。豈可信哉。(참고문헌 전자매체 6. 한국고전종합DB)

46) 武陵雜稿：조선 중종~명종 때의 청백리(清白吏), 학자였던 주세붕(周世鵬)의 시문집. 목판본. 본집 8권, 별집 8권, 도합 16권 9책. 선조 때 아들 박(博)이 편집하여 판각하였으나 병화(兵火)로 없어져, 1859년(철종 10)에 후손 병항(秉恒)이 친족 상현(相炫)과 협력하여 다시 수집, 중간하였다. 내용은 부(賦), 사(辭), 시(詩), 봉사(封事), 서(書), 잡저(雜著), 서(序), 기(記), 발(跋), 축제문(祝祭文), 묘지갈(墓誌碣), 습유(拾遺), 부록 등으로 되어 있다. 책끝에 이황(李滉), 주박의 발문과 유치명(柳致明), 주상현의 중간발(重刊跋)이 있다.(참고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47) 武陵雜稿卷之一 原集：醉歌次勸學韻。贈別表任赴鄉試 / 武陵雜稿卷之二 原集：送姪福及表任上鷲峯寺。讀書 / 武

마지막으로 尹春年(1514~1567)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中宗 사후에 소윤과 대윤의 분열이 일어나자 소윤의 영수인 尹元衡의 세력에 가담하여 明宗이 즉위한 후에 많은 선비들을 숙청하면서 尹元衡 독주체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尹元衡이 실각하자 파직되었다. 1553년 대사간, 이듬해에 大司憲에 올랐으며 1558년 冬至使로 명나라를 다녀왔으며, 이후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다가, 1565년 尹元衡이 실각하자 파직되었다. 학문경향은 주자성리학에만 집착하지 않고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sup>48)</sup>.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의 마지막 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監校 嘉義大夫 行僉知中樞府事 尹春年

尹春年이 嘉義大夫의 관계를 받은 것은, 明宗 9년(1554년 갑인 / 明 嘉靖 33년) 8월 2일(庚午) 2번째 기사에 나타난다.<sup>49)</sup> 그러나 僉知中樞府事를 제수받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후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尹春年의 관직 제수와 행적을 資憲大夫의 관계를 받을 때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종 18권, 10년(1555/ 明嘉靖 34년) 5월 - 禮曹參判  
 명종 19권, 10년(1555/ 明嘉靖 34년) 11월 - 弘文館副提學  
 명종 20권, 11년(1556/ 明嘉靖 35년) 5월 - 司憲府大司憲  
 명종 21권, 11년(1556/ 明嘉靖 35년) 11월 - 弘文館副提學  
 명종 23권, 12년(1557/ 明嘉靖 36년) 6월 - 冬至副使<sup>50)</sup>로 임명

陵雜稿卷之一 別集：武陵洞小樓。次表任韻。(참고문헌 전자매체 6.한국고전종합DB)

48) [http://dic.naver.com/\(네이버사전\)](http://dic.naver.com/(네이버사전))

49) 김명윤, 윤춘년, 권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以金明胤爲戶曹參判，尹春年爲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春年，初爲尹元衡鷹犬，論殺尹元老，自是權勢日熾，駁擊人物，變胤朝政，皆在其手。以儒者自處，締結土流，外似清虛，內實凶狡。】【史臣曰：“《春年》，本以斗筭之才，外示廉謹之跡，陽若盡心於謀國。長在於論思、諫諍、風憲之長，先王舊章，次第變更。其實則以尹元衡爲之窟穴，其所建白者，無不稟裁於元衡，元衡所爲，亦贊助而成之。其致人心之不服，主勢之日孤，皆偏信此輩之故也。夫以言貌取人，孔聖猶有是戒，則爲人上者，可不以知人爲務乎?”】(참고문헌 전자매체 5.조선왕조실록)

權轍爲戶曹參議，朴民獻爲折衝將軍義興衛護軍，朴諫爲折衝將軍義興衛副護軍。【民獻、諫，以重創欽敬閣賞加。】  
 50) 冬至使와 冬至副使：冬至使는 조선시대에 명(明)나라와 청(淸)나라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사신. 대체로 동지(冬至)

명종 23권, 12년(1557/ 明嘉靖 36년) 8월 - 同知中樞府事  
명종 23권, 12년(1557/ 明嘉靖 36년) 8월 - 北京으로가 冬裘를  
하례할

명종 24권, 13년(1558/ 明嘉靖 37년) 3월 - 환궁

명종 24권, 13년(1558/ 明嘉靖 37년) 3월 - 資憲大夫의  
관계를 받음

資憲大夫이 嘉義大夫가 된 것은 明宗 9년(1554년,  
가정33년)이며 同知中樞府事가 된 것은 明宗 12년  
(1557년, 嘉靖36년)이므로, 嘉義大夫로서 僉知中樞  
府事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54년에서 1557년  
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乙亥字本 『黃帝內經素  
問』은 대략 1554년에서 1557년 사이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柳珥은 21-24세의 나이였  
고 裴任이 진사에 합격한지 5-8년 후이므로 裴珣은  
이미 4-50대로 짐작할 수 있으며, 尹春年의 나이  
41-44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內醫院木活字本 『黃帝內經  
素問』이 萬曆 43년 1615년(光海君 7년)에 간행되었  
으므로 이보다 58-61년 정도 앞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光海君 때에 다시 간행한 이유는 오랜 전란  
으로 의학 전적이 많이 소실되어 새로 간행 보급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절기를 전후하여 보냈으므로 동지사라 하였다. 정사(正使)는  
3정승(政丞) 또는 6조(曹)의 관서(判書) 중에서 임명했으며,  
정사 이외에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종사관(從事官),  
통사(通事),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등  
40여 명이 수행하였다.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 호피(虎皮),  
수달피(水獺皮), 화문석(花紋石), 종이, 모시, 명주, 금 등을  
선물로 가져갔는데, 1429년(세종 11)에 금은 면제되었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명. 청나라에서는 그에 맞먹는 중국의  
특산품을 조선에 선물했으므로 이 선물교환은 일종의 공무역  
(公貿易)이었다. 동지사의 파견은 1894년(고종 31) 갑오  
개혁(甲午改革) 때까지 계속되었다.

51) 참고문헌 전자매체 1.의 초록보기: 『언해구급방(診解救  
急方, 1607)』, 『언해태산집요(診解胎產集要, 1608)』,  
『언해두창집요(診解痘瘡集要, 1608)』, 『의림촬요속집  
(醫林撮要續集, 1608)』,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  
訣集成, 1612)』,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 『간이벽온방  
(簡易辟瘟方, 1613)』,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 1613)』,  
『벽역신방(辟疫神方, 1613)』 등을 내의원자로 간행할  
때 광해군(光海君) 7년(1615)에 이 책이 간행되었다.(참고  
문헌 전자매체 4.네이버사전)

#### 4. 內醫院刻本 『黃帝內經素問』과의 비교

현재 乙亥字本 『黃帝內經素問』과 內醫院刻本 『黃帝  
內經素問』을 비교해 보면 몇 글자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하다. 內醫院木刻본은 內醫院木活字本을  
그대로 飜刻한 것이므로 수집한 판본의 편의상 木刻  
本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內醫院에서  
木活字本 간행 시 李希憲과 尹知微 등 監校官이 중국  
판본으로 校正하지 않고 주로 乙亥字本을 위주로 간행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일부 판본과 현재  
통용되는 四部備要本과는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乙亥字本과 內醫院刻本이 차이나는 부분은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是故謹和五味 骨正筋柔 氣血以流 [湊]理以密 如是則氣骨  
以精 謹道如法 長有天命(生氣通天論)

- 內醫院本에는 [腠]로 되어 있다. - 『吳本』과 동일

帝曰五藏應四時 各有[收]受乎(金匱真言論)

- 內醫院本에는 [攸]로 되어 있다.

中央者 其地平以濕 [天地]所以生萬物也衆(異法方宜論)

- 內醫院本에는 [天地之]로 되어 있다. - 『周本』과 동일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栗而散者 當病灌汗 [至復令不  
散發也](脈要精微論)

- 內醫院本에는 [至令不復散發也天地之]로 되어 있다. -

『讀本』, 『趙本』, 『吳本』, 『藏本』, 『態本』, 『太素』와 동일  
因天之序 盛虛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 [故日月生而寫]  
是謂藏虛(八正神明論)

- 內醫院本에는 [故日月生而寫]로 되어 있다. - 『守校本』  
과 동일

或卒然痛 死不知人 [有少間復生者](舉痛論)

- 內醫院本에는 [少間復生者]로 되어 있다. - 『胡本』, 『元  
殘二』, 『趙本』, 『吳本』, 『藏本』, 『態本』, 『滑抄本』과 동일

歧伯曰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水熱穴論)

- 內醫院本에는 [關閔不利]로 되어 있다. - 『太素』와 동일

血氣未并 五藏安定 孫絡[水溢]則經有留血(調經論)

- 內醫院本에는 [外溢]로 되어 있다. - 『金本』, 『趙本』, 『明抄  
本』과 동일

齒齲 刺手陽明 不已 刺其脈入[齒中]者 立已(繆刺論)

- 內醫院本에는 [齒中者]로 되어 있다. - 『金本』, 『胡本』,  
『讀本』, 『趙本』과 동일

이상을 살펴보면 판본의 계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 글자에 한하여 판단하여 수정하거나 첨가하는 작업에 그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당시에 유통되던 여러 판본을 참고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나 그 가운데에도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을 따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內醫院刻本『黃帝內經素問』이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 중심으로 교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結論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의 간행 연대에 대한 고증 결과 명종 연간 1554년에서 1557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만력 43년 광해군 7년(1615년)에 간행된 內醫院木活字本『黃帝內經素問』보다 대략 60년 정도 이른 것이다.

또한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과 內醫院本『黃帝內經素問』의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乙亥字本을 원형으로 하여 內醫院本을 교정하였고 일부 기타『黃帝內經』 판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판본에 대한 전통적인 계승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이다.

高麗時代 이전까지 우리나라 의학에 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며 이는 일반 역사 기록의 경우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高麗는 鄉藥運動을 통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의학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의학 성과가 유입되면서 朝鮮은 고유의 의학으로 요약해 내기보다는 외연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金元醫學도 明代의 정리 과정을 거쳐 이 시기부터 한국의학에 반영되었다. 朝鮮은 먼저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하여 중국 의서를 재판집한『醫方類聚』를 제작하였고 이후 중국의 원서를 대량 출판하고 醫書習讀官 제도를 두어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이 계속 시행되었다. 특히 의학의 원리 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의생들에게 儒學을 학습 시킴으로써 철학적 관점을 통하여 인체 내면을 통찰하게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黃帝內經』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 되었다.

朝鮮은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의학을 발전시켜 결국『東醫寶鑑』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의학을 우리나라의 것으로 소화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내용적으로는 인간 내면에 대한 원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현실에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었으며, 五臟六腑의 기능적인 단위로부터 더 나아가 精, 氣, 神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에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朝鮮刊本『黃帝內經』 연구의 의미는 高麗 말기와 朝鮮의『東醫寶鑑』 완성 시기까지 의학의 발전 속에서 이를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제도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연구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刊行 판본이 가지고 있는 서지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의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국가적 지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의학사상 뿐만 아니라 문화제도사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향후 朝鮮刊本『黃帝內經』의 비교 작업을 통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黃帝內經』의 몇몇 주요 조문에 대한 교감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원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면『黃帝內經』 각 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어 한의학 교육 및 기초, 임상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의사학적으로는, 주요 쟁점 조문에 대한 조선판본의 선택들이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황제내경」 연구의 특성과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한국한의학에 대한 역사 연구에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의학 뿐만 아니라 판본학 또는 활자 연구에 있어서 간행 연대 고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과『黃帝內經靈樞』에 대한 정확한 간행 연대 혹은, 전후 乙亥字本과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이를 통하여 乙亥字 및 乙亥字로부터 파생된 여러 판본의 계통을 파악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판본이 발견될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유용한 서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학 역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학 사상사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료라는 개념으로 넓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의학이론이나 치료기술보다는 당시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의료가 이루어지고 의학이 교육, 전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黃帝內經』은 바로 이러한 문화사, 제도사적인 당시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서이므로, 의학 외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민간보다 우수한 국가의 활자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의서들 중에서 『黃帝內經』을 간행하였다는 사실은 학문의 보급 차원 이외에, 국가의 의료 사업에 대한 높은 지원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당시 조선의 독자적인 한국의학의 발전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黃帝內經』의 원리적 연구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 선현의 깊은 뜻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參考文獻

### <저서 및 논문>

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3. p.30, 66, 134, 177, pp.419-422
2. 김치우. 을해자본과 방계자본고. 도서관학논집 27. 2008. pp.38-42, 49-50.
3. 마계홍. 중의문헌학.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p.68-85.
4.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284, 291, 300.
5.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1. p.64.
6. 용백건. 황제내경개론. 서울. 논장. 1988. p.1-216.
7.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서울. 범우사. 1993. p.173.
8. 최소자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서울. 서해문집. 2005. p.95.

### <전자매체>

1.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7662215&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53&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7662215&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53&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

2.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48585216&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72&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48585216&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72&place_name_info=%EA%B3%A0%EC%A0%84%EC%9A%B4%EC%98%81%EC%8B%A4%286%EC%B8%B5%29&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
3.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etc&service=KORCIS&vdkvgwkey=139813918&colltype=dan-old&place\\_code\\_info=&place\\_name\\_info=&manage\\_code=AJPN22&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totalList&srchFlag=Y#dummy](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etc&service=KORCIS&vdkvgwkey=139813918&colltype=dan-old&place_code_info=&place_name_info=&manage_code=AJPN22&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totalList&srchFlag=Y#dummy)
4. <http://dic.naver.com/>(네이버사전)
5.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조선왕조실록)
6.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한국고전종합DB)
7. <http://blog.naver.com/munjunggong?Redirect=Log&logNo=120106406248>